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등학교 음악수업 실태조사

-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박 상 미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시에 따른 인문계 고등학교의 음악과목 수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음악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1230개 홈페이지를 찾아 음악교사 이메일 주소가 나와있는 383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8부가 회수되어 58부만으로 응답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음악수업이 기본 4단위였는데 제7차 교육 과정에 와서 2단위로 줄었다. 그리고 2,3학년에 '음악과 생활'이란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응답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 58개 학교에서 현재 음악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학교는 2학년에 44개 학교, 3학년에 14개 학교이며, 3학년의 경우 71%가 개설되지 있지 않았다. 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이 선택하지 않으면 개설되지 않아 음악수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의문이다.

셋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다른 주요과목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95%이며, '한 학기에 한두 번 음악수업을 미 실시 한다'는 응답은 5%로 음악수업이 입시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로는 피아노가 98%로 가장 많았으며, 장구 88%, 북 74%, 팽과리 78%, 징 69%, 단소 57%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국악악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음악교사의 전공은 성악이 40%로 가장 많았고, 국악전공이 2%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보다 일반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친 전공분야보다 여러 전공분야의 음악교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창'과 '기악'을 시행한다는 응답 수는 각34명, '감상'을 시행한다는 응답 수는 32명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가창, 기악, 감상을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을 통한 조사연구는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많이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다른 조사연구 방법들을 연구하여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조사연구 등에 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다음 연구에서는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이 보는 관점과 학생들이 음악수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고려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음악교육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음악수업인가를 고찰하여 음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문제 및 방법	3
4.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	5
2.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교과 시간 배당	7
3. 선행연구 고찰	10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3
1. 연구대상	13
2. 연구도구	14
3. 연구기간	15
4. 연구절차	15
5. 연구분석방법	15
6. 결과 및 해석	16
IV. 결론 및 제언	47
1. 결론	47
2. 제언	50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설문지

표 목 차

<표 II-1>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9
<표 III-1> 지역별 응답 수	3
<표 III-2> 교사의 응답 지역분포	3
<표 III-3> 교사의 성별	7
<표 III-4> 교사의 연령	7
<표 III-5> 교사의 교직 경력	3
<표 III-6> 교사의 최종 학력	9
<표 III-7> 교사의 전공	0
<표 III-8> 음악연수 횟수	2
<표 III-9> 학년별 학급 수	2
<표 III-10> 음악실 보유 현황	3
<표 III-11> 음악실 환경	4
<표 III-12> 음악실 환경 지역별 분석	3
<표 III-13> 음악실 보유 기자재	0
<표 III-14> 음악실 보유 악기	7
<표 III-15> 교사의 담당 학년	8
<표 III-16> 교사의 담당 학급 수	9
<표 III-17> 2,3학년의 음악과목 개설 여부	0
<표 III-18> 음악개설 여부 지역별 분석	3
<표 III-19> 음악수업 진행현황	3
<표 III-20> 음악수업 진행 장소	3
<표 III-21> 가창영역의 비중	3
<표 III-22> 가창영역의 비중 지역별 분석	3
<표 III-23> 가창영역 외 중시하는 영역	6
<표 III-24> 교사가 사용하는 교재	3
<표 III-25> 교재 선택 시 중심이 된 사람	8
<표 III-26> 교과서 외 참고자료	9
<표 III-27> 수행평가 방법	0
<표 III-28> 교사가 받은 음악연수	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악과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음악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면서 학교 교육방침에 따라 음악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음악과 생활’이란 교과를 배움으로서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적 교양을 갖추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¹⁾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음악 활동에서부터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깊이 있는 과정까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면서 음악과목에 대한 애착과 음악적인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은 음악과목을 배우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학생들에게 음악과목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이해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음악과목은 입시라는 사회현상에 밀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른 주요과목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과목이 다른 주요과목에 밀리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풍토가 음악교육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데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에서 홍익인간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이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이념일 뿐, 실제로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교과목이나, 사회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

1) 교육부,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8.

는 기능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을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대신 표현한 대중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바라는 음악적 요구는 정서의 강한 표출에 들어맞고 접근이 용이한 현실 도피적인 음악이다. 대개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현실 도피적인 대중음악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위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음악이 거의 대중 음악인데다 좋은 음악인지 나쁜 음악인지 개념도 서지 않은 채 또래집단이 선호하는 음악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음악은 그 구조나 심미적 내용이 단순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거나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바람직한 가치관을 확립시켜주기 위해 교사의 바른 음악적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²⁾

음악교육은 음악적 소양을 배양시키고 인격체로서의 전인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음악 경험을 재구성한다. 음악 경험은 읽고 듣고, 쓰고, 이해하고, 연주하고, 창작함으로써 인지적, 감성적, 심동적 영역에 모두 관여한다. 그러나 지금껏 음악교육은 신체적, 지적, 도덕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외적 가치가 마치 음악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 강조되어 오늘날 학교 안의 음악과 위상을 허약하게 만들어 왔다. 우리는 이런 도구적 가치가 주된 가치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음악교육은 음악 예술에 대한 심미 그 자체와 음악 예술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 때문에 인간에게 절실하고 긴요한 기본적인 것이 된다. 음악교사들은 음악 자체의 기본 내적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음악 수업에서 노래를 잘 부르도록 연습시키고, 악기를 잘 연주하도록 훈련시키며, 이론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종의 수단이지 음악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

2) 이철구·이양, 「심리학으로 본 음악 음악교육」 서울 : 교육과학사, 2001, p.21.

닌 것이다.

음악교육은 예술적 경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나 공식으로서 배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통찰, 즉 감성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적 음악교육은 온전한 지식을 구축한 전인교육을 위하여 양과 질이 필요하다.³⁾

이렇듯 고등학교 과정의 음악교육이 청소년 시기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이나 감성교육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음악교사의 바른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음악수업의 비중이 여러 교과들에 비해 얼마나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음악교육을 받기 위한 환경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음악과목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음악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문제 및 방법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까지의 음악과목 배당 기준은 어떻게 변

3) 이철구·이양, 전게서, pp.100-102.

천하였는가?

둘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음악과목이 개설되어 있는가?

셋째, 음악과목은 다른 주요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넷째,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받기 위한 음악실 환경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방법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수업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음악수업의 개설여부와 음악실 환경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사 대상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두고 있다.

첫째,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서 음악교사 이메일이 소개되어 있는 383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회수된 58부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

청소년 시기를 구분함에 있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 명확히 구분 짓기는 어렵다. 독일의 교육학자 Poggeler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아동기도 아니고 성인기도 아닌 중간단계로서 이 두시기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한다.⁴⁾ 또한 청소년 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보지만,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기란 사춘기가 시작되는 약11~12세부터 23~24세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과도기라는 점에서 제2의 탄생기라고도 불리 운다.⁵⁾

청소년 시기의 특징은 신체 생리적인 성장, 인지적인 발달, 정의·사회적인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동시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되는 정의·사회적인 측면, 즉, 정서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서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강한 감정으로, 신체 생리적 동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동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정서는 그 격렬함과 변화 성으로 인해 동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⁶⁾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적 이다. 청소년들은 욕구가 강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욕구를 쫓고자 하는데 이때 욕구의 불만족으로 인한 상호간의 갈등과 현실과의 대립으로 비 일관적이고 불안정적인 정서 속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4) 김남선 외 4인, 「청소년 교육론」 서울 : 형설 출판사, 2001, p.37.

5) 한상철 외 4인, 「청소년 지도론」 서울 : 학지사, 2003, p.87.

6) 한상철 외 4인, 상계서, p.96.

7) 한상철 외 4인, 상계서, pp.97-98.

된다.

둘째, 기분적이고 과민하다. 청소년들은 사소한 일에도 정서적 동요를 느끼며 시시때때로 기분이 자주 변한다. 어떤 일에 대해 기분이 들며 기쁨에 넘치다가도 금방 슬픔에 잠기고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비판론에 빠지기도 한다.

셋째, 수줍다. 청소년들의 수줍음은 신체적인 어색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발달된 자아 의식과 관련된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자유롭지 않은 행동과 이성친구에게 솔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편안하고 자연스런 정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성 관계에서 경험되는 정서적 불안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울감, 공허감,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넷째, 열중적이고 격동적이다. 청소년들은 아동기보다 정서적으로 훨씬 더 감동을 잘한다. 또한 인지 능력의 발달로 타인과의 공감능이 뛰어나 남의 이야기에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흥분해서 현실감을 잃고 격동적으로 동요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 친구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무모한 모험심이나 영웅심에 빠지기도 한다. 근래 청소년들의 경우 스포츠, 오락, 게임 등에 열중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흔하며, 연예계나 스포츠계의 스타들에 대한 일부 극성스런 팬들의 열기도 청소년기의 격렬하고 열중적인 정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정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불안과 갈등,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발달단계 보다도 변화가 심하고 많으며,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적고, 타인에 의해 쉽게 동요되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음악적 발달은 육체적, 심리적 성장에 알맞아야 한다. 청소년들은 정서의 강한 표출에 들어맞고 접근이 용이한 대중음악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예술적 표현이 알맞게 절제되어 있고, 선율의 선이 분명하며 짜임새가 안정되고 탄탄한 고전음악을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데 역할을 한다.

청소년 이후 성인기의 사람들은 과거 시대의 음악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많다. 음악적 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새로운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할 기회도 많겠지만, 대개는 생소한 음악은 기피하고 지난 시절에 좋아했던 음악을 되씹게 된다. 심지어는 어린 시절의 동요까지도 의미를 부여해 가는 경우도 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접한 음악이 다양하지 못하고 내용이 단순하고 취약한 대중음악이었다면 평생 이런 좋지 못한 음악만 접하게 되어 결국 평생 음악의 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음악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⁸⁾

2.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교과 시간 배당⁹⁾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제7차 교육과정까지 개정되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까지 변천하면서 과목별 시간 배당 기준도 다르게 변했다. 고등학교 음악과목의 시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은 「필수교과」 음악과목이 1,2,3 학년에 걸쳐 미술과목과 함께 140시간을 수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것을 매주 평균 4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제시되어있다. 또한 「선택교과」에서는 체육·음악·미술과목을 선택하여 1,2,3 학년에 걸쳐 0~210시간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주 평균 수업 시간을 0~6시간을 수업을 진행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8) 이철구·이양, 전계서, p.21.

9)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0.

제2차 교육과정은 인문과정이나 자연과정, 직업과정의 계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음악 I 을 6단위로 늘렸다. 이것은 고등학교 3년 간에 이수해야 할 총 단위 수를 말한다. 또한 예능의 특기를 최대한으로 신장하게 하는 것이 예능 교육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음악을 택하는 학생은 음악 II 를 24단위까지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것 또한 3년 간에 이수해야 할 단위 수이다.

제3차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을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으로 나누었다. 「과정별 선택 교과목」에는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2학년부터 인문, 자연, 직업과정으로 되어있다. 음악과목은 「필수 및 필수선택 교과목」단위 수를 4~6단위로 제시하였고, 「과정별 선택 교과목」에는 음악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제4차 교육과정은 음악과목이 「공통 필수 과목」에 4~6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나 미술과목과 한가지 선택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3년 간에 이수해야 할 단위 수를 말한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인문, 자연과정에서는 음악을 4~6단위로 제시하면서 미술과 한가지 선택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에서는 음악과목을 2~6단위로 제시하면서 미술과 한가지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제5차 교육과정은 「공통 필수」단위가 4단위로 제시되어 있으며, 「과정별 선택 교과」에는 음악과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에서 음악과목과 미술과목을 2단위로 제시함으로써 한가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은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필수 과목」을 교육부가 지정하여 공통 핵심을 유지하고,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에서, 또 「과정 선택 과목」은 각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음악과목은 「공통 필수 과목」음악 I (4)과 음악 II(4)를 제시함으로써 음악 II는

예술에 관한 전문 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6차 교육과정까지 제시되었던 「공통 필수 과목」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10학년)까지 10년 동안 연계해서 배워야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6차 교육과정의 공통 필수 과목에 4단위로 제시되었던 음악과목을 2단위로 줄였다.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개선하여 일반 선택 과목에는 '음악과 생활'이란 교과를 신설하여 4단위로, 심화 선택 과목에는 음악이론 4단위와 음악 실기 4단위 이상이 제시되었다.

이것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Ⅱ-1>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 단위 수	공통 필수과목	과정별 선택교과
제1차 교육 과정기 (1954~1963)	4	0~6
제2차 교육 과정기 (1963~1974)	6	
제3차 교육 과정기 (1974~1981)	4~6	
제4차 교육 과정기 (1982~1988)	4~6	4~6
제5차 교육 과정기 (1988~1992)	4	
제6차 교육 과정기 (1992~1997)	4	4
제7차 교육 과정기 (1997~현재)	2	4

※ 1단위는 매주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3. 선행연구 고찰

오재현¹⁰⁾은 '국민교육 시대의 고등학교 음악수업 방향연구'에서 오늘날 학교 음악교육이 음악적 성취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대비한 교육이나 교사 중심의 전달과 수용에 의존하는 암기 교육에만 치중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마치고난 학생들에게 과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만큼 실현되었는지, 또한 그들의 음악적 능력이나 음악적 심성이 어느 정도 성장, 발전하여 생활과 삶 속에 영위하고 있는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소질과 특성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키고 포괄적인 개인음악의 성장과 이를 통한 음악의 생활화를 지도하도록 한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그들의 삶 속에 음악의 훌륭한 역할로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의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고 학습목표 달성에 극대화를 꾀한다. 그래서 초·중등학교에서 경험한 개인의 음악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를 통한 음악을 심미적으로 생활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고등학교 음악교육은 개개인의 전문화된 학습 활동을 통하여 보다 깊은 음악적 이해와 표현 양식을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단계를 터득하게 된다. 스스로 음악을 이해할 줄 알고, 스스로 음악을 표현할 줄 알며, 스스로 음악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화된 고등학교의 음악교육 과정이라 하여 음악학교나 예술 학교와 같은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음악의 기초를 좀 더 전문적으로 연마하고 개인은 어느 한 분야의 기량을 최대한 학습하려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은 음악 수업의

10) 오재현, 국민교육 시대의 고등학교 음악수업 방향연구, 「예술과 교육」 4, (98.11) : 81-82.

내용은 연계적이고 위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수업 방향을 제시하였고,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는데 그 연구대상이 특정인만을 선정하였는지, 어느 지역 누구를 선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제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남는다.

공소현¹¹⁾은 '부산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에서 초·중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해야하는데 학생들의 창의적인 음악 활동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음악 수업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가창·전통음악·기악·창작·감상·평가 등의 실제 음악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악교사를 통한 설문지를 통하여 파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과서의 내용은 많은데 수업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학생들의 흥미가 부족하며 대부분 교과서 중심의 곡을 평가하므로 각자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과서의 개편과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교사의 여러 활동, 음악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고찰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설문지 형식도 39문제나 되어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로 부터 약간의 지루함을 갖게 하게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다.

이혜자¹²⁾는 '포괄적 음악과 학습지도를 위한 음악교육실태 조사연구'에서 우리

11) 공소현, 부산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2001).

12) 이혜자, 포괄적 음악과 학습지도를 위한 음악교육실태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나라의 음악교육이 가창중심교육을 탈피하여 가창·기악·창작·감상 등을 유기적으로 맺는 음악교육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악교육은 단편적인 음악지식이나 가창의 기능만을 기르는데 치우쳤다. 때문에 학생들의 심미적인 심성도야나 생활화된 음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입장과는 거리가 먼 감이 있으며, 더군다나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되어 가는 고등학교 교육현실에서 볼 때 정상적인 음악교육이 소홀히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음악교육 활동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교육과정의 구성, 학생들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학습환경, 교사의 전문적이고 의도적인 지도, 장학인의 적극적인 지원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연구의 필요성이 확실히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선행연구 고찰에 대한 부분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미흡한 부분을 볼 수 있었다.

위 선행논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입시제도 때문에 음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주로 교사를 중심으로 한 설문지를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음악실 환경의 미흡한 점과 학생들의 입시제도에 따른 주입식 교육, 교사의 다양한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입시제도로 인한 음악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조사하여 더 나은 음악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전국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음악교사 메일주소 383개만을 찾을 수 있었다. 메일을 발송한 결과 응답메일을 보내 온 학교는 58개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58개 학교의 음악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메일을 보내 온 음악교사들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경상권이 29%로 응답 교사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권 24%, 수도권 22%, 강원도 5%, 제주도 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지역별 응답 수

구 분	응답수	백분율
수도권	13	22.4%
충청권	9	15.5%
전라권	14	24.1%
경상권	17	29.3%
강원도	3	5.2%
제주도	2	3.4%
합 계	58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 방법 중 이메일을 통한 질문지법을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고등학교의 음악과목 개설여부와 음악수업 환경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질문지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첫째, 음악교사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질문이 7문항이며, 둘째, 음악 수업의 실태로 객관식 9문항과 주관식 8문항으로 작성하였다.

< 1 > 음악교사의 개인적 배경

< 2 > 음악 수업의 실태

- 1) 학년별 학급 수
- 2) 음악실 보유 현황
- 3) 음악실 환경
- 4) 음악실 기자재와 악기 보유 현황
- 5) 교사의 담당 학년과 담당 학급 수
- 6) 2, 3학년의 음악과목 개설 여부
- 7) 음악수업 진행 현황과 진행 장소
- 8) 가창영역의 비중
- 9) 가창영역 외 중시하는 영역
- 10) 교사가 사용하는 교재 현황
- 11) 교재 선택 시 중심이 된 사람
- 12) 교과서 외 수업 준비 참고자료
- 13) 수행평가 방법

3. 연구기간

본 연구는 설문지를 1차 9월 30일에 배포하여 10월 9일까지 회수한 결과 응답지 18부가 회수되었고, 2차 10월 10일에 배포하여 10월 16일까지 응답지 32부가 회수되었으며, 3차 10월 18일에 배포하여 10월 26일까지 응답지 11부가 회수되었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실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리스트를 찾았다. 그 중 인문계 고등학교 1230개만을 추렸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Naver와 Yahoo에서 각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찾았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교사소개란의 음악교사 이메일 주소 383개만을 찾을 수 있었다. 보낸 결과 메일을 읽은 교사는 219명, 메일을 읽지 않은 교사는 106명, 그리고 메일 주소 58개가 전송실패로 돌아왔다. 응답 메일을 보내온 교사는 61명이었으며, 그 중 3부는 응답을 보내왔지만 응답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58부만으로 설문지 분석을 하였다.

5. 연구 분석방법

첫째, 표의 작성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프로그램 Excel을 사용하였다.

둘째, 설문지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먼저 제시한 다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 몇 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설문지의 내용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6. 결과 및 해석

1) 교사가 응답한 지역분포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전국을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회수율이 '전북'과 '경남'이 14%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울산'은 0%의 비율로 응답자가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III-2> 교사의 응답 지역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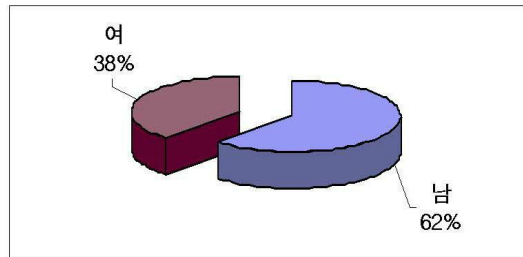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	백분율
서울	7	12.1%
경기	4	6.9%
인천	2	3.4%
대전	2	3.4%
충남	6	10.3%
충북	1	1.7%
전남	5	8.6%
전북	8	13.8%
광주	1	1.7%
강원도	3	5.2%
경남	8	13.8%
경북	4	6.9%
대구	3	5.2%
부산	2	3.4%
울산	0	0.0%
제주	2	3.4%
합계	58	100.0%

2) 교사의 성별

교사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남 교사는 62%, 여교사는 38%로 남 교사가 여교사 보다 많았다.

<표 III-3> 교사의 성별

구분	남	여	합계
성별	36	22	58
백분율	62.1%	37.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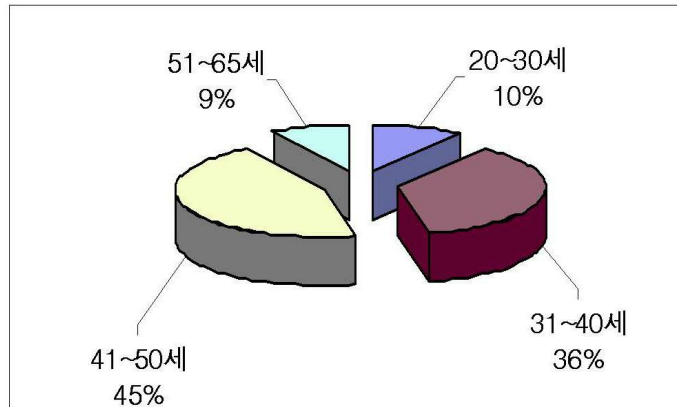


3) 교사의 연령

응답자의 연령층은 '41~50세'가 45%로 가장 많았고, '31~40세' 연령층도 3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0~30'세 10%, '51~65'세 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 교사의 연령

구분	20~30세	31~40세	41~50세	51~65세	합계
응답수	6	21	26	5	58
백분율	10.3%	36.2%	44.8%	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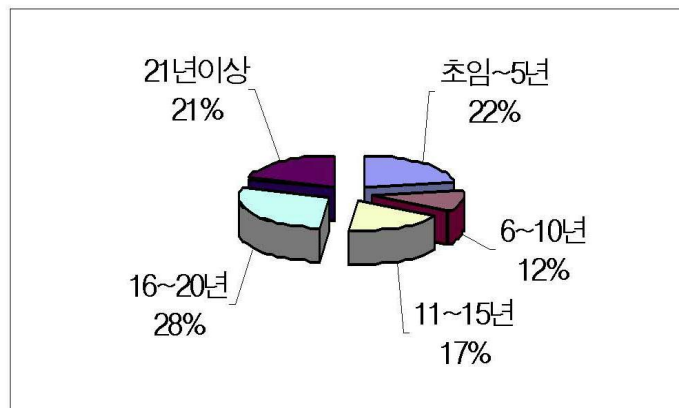


4) 교사의 교직 경력

응답자의 교직 경력은 '16~20년 사이'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초임~5년 사이' 22%, '21년 이상' 21%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I-5> 교사의 교직 경력

구분	초임~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이상	합계
응답수	13	7	10	16	12	58
백분율	22.4%	12.1%	17.2%	27.6%	2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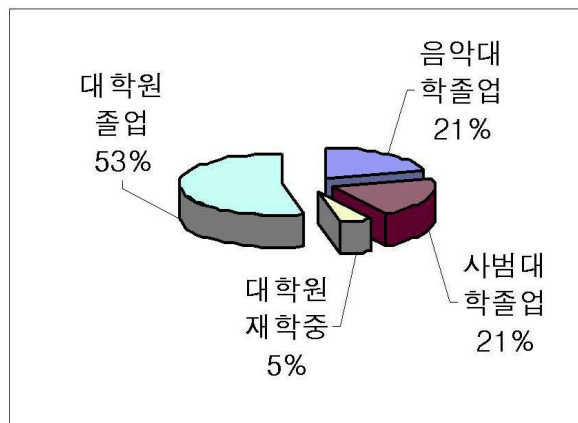


5) 교사의 최종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묻는 질문에 '대학원 졸업'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음악대학 졸업자' 21%와 '사범대학 졸업자' 21%가 같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대학원 재학 중'인 교사는 3%이다.

<표 III-6> 교사의 최종학력

구분	음악대학졸업	사범대학졸업	대학원 재학중	대학원 졸업	합계
응답수	12	12	3	31	58
백분율	20.7%	20.7%	5.2%	5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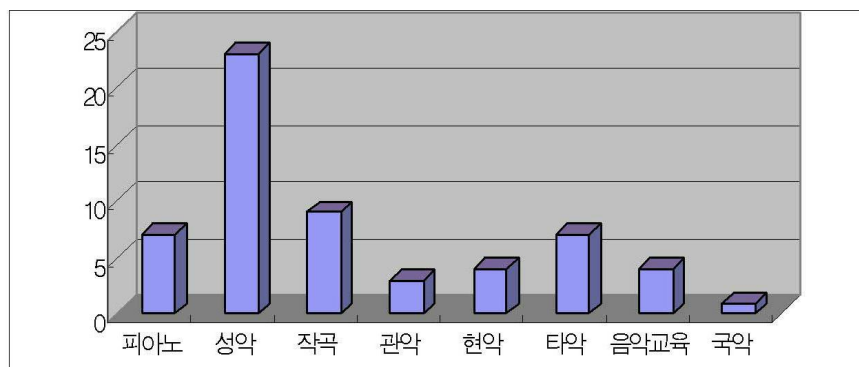


6) 교사의 전공

음악교사의 전공을 묻는 질문에 '성악'이 40%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국악'이 2%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음악교육'이 7%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것으로 보아 '사범대학'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보다 일반 음악대학을 졸업하여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 교사의 전공

구 분	응답수	백분율
피아노	7	12.1%
성악	23	39.7%
작곡	9	15.5%
관악	3	5.2%
현악	4	6.9%
타악	7	12.1%
음악교육	4	6.9%
국악	1	1.7%
합 계	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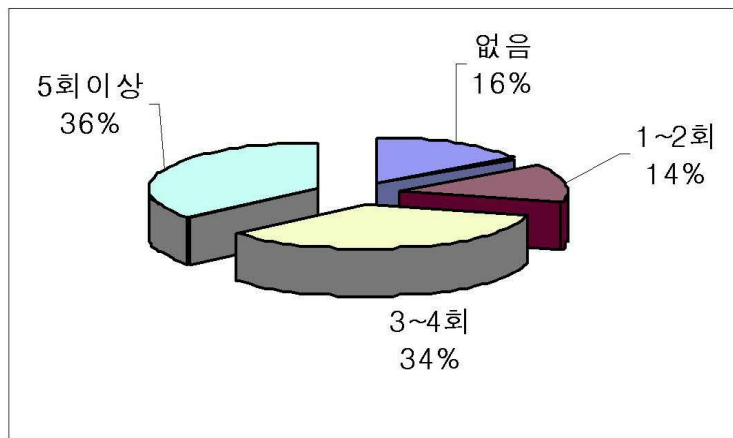


7) 교사 재직 중 음악연수 받은 횟수

교사 재직 기간 중에 음악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를 조사한 결과 '5회 이상' 음악연수를 받은 교사는 3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4회' 35%, '1~2회'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음악교사 대부분이 음악연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 중 음악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는 16%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8> 음악연수 횟수

구 분	없음	1~2회	3~4회	5회이상	합계
응답수	9	8	20	21	58
백분율	15.5%	13.8%	34.5%	3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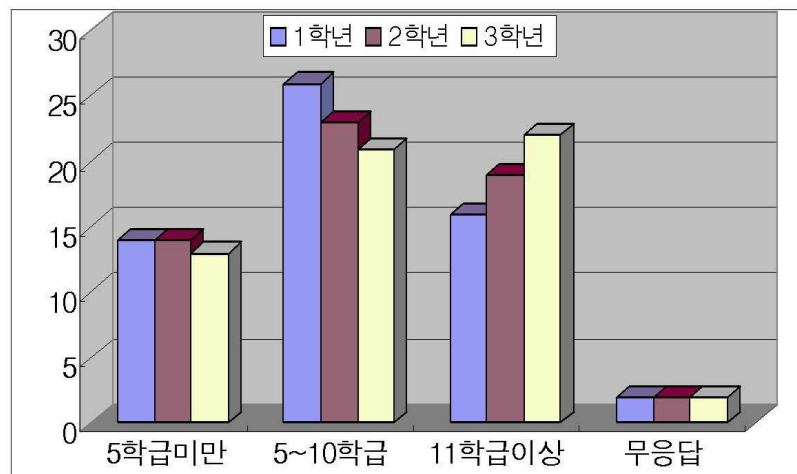


8) 학년별 학급 수

고등학교 학년별 학급 수를 조사한 결과 1학년에서는 '5~10학급'이 45%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로 '5~10학급'이 4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3학년에서는 '11학급 이상'이 38%, '5~10학급' 3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고등학교의 학급수가 적지 않은 걸 알 수 있다.

<표 III-9> 학년별 학급 수

구분	5학급미만	5~10학급	11학급이상	무응답	합계
1학년	14	26	16	2	58
백분율	24.1%	44.8%	27.6%	3.4%	100.0%
2학년	14	23	19	2	58
백분율	24.1%	39.7%	32.8%	3.4%	100.0%
3학년	13	21	22	2	58
백분율	22.4%	36.2%	37.9%	3.4%	100.0%
합계	41	70	57	6	174
백분율	23.6%	40.2%	32.8%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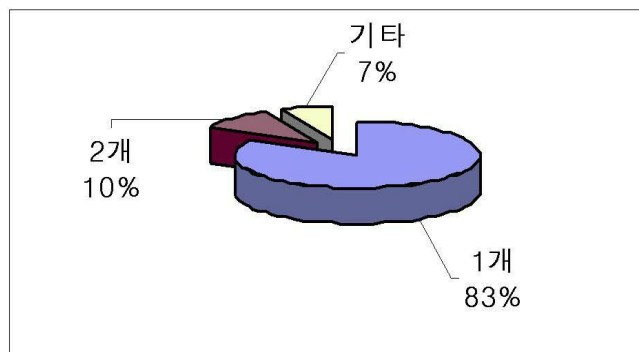


9) 음악실 보유 현황

고등학교 음악실 보유정도에 따른 질문에 '음악실이 1개'라는 응답이 83%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고등학교의 음악실은 대부분 1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응답으로 교사가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악기실과 음악 전공 학생들을 위한 학생 연습실, 그리고 교사 준비실과 타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룹사운드 연습실을 보유하고 있다는 좋은 의견이 있었다.

<표 III-10> 음악실 보유 현황

구 분	1개	2개	기타	합계
응답수	48	6	4	58
백분율	82.8%	10.3%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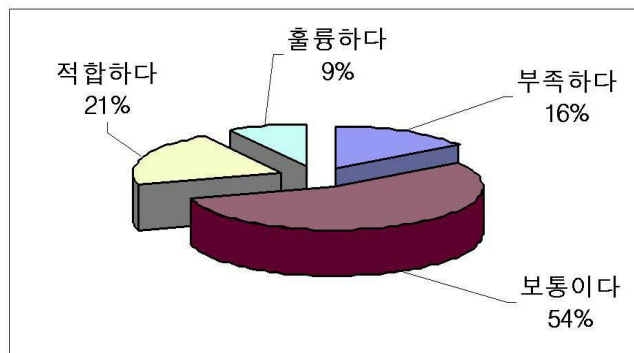


10) 음악실 환경

음악실 환경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55%의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음악실 환경이 음악수업을 진행하기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음악실 환경에 대한 응답 중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16% 이므로 음악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11> 음악실 환경

구 분	응답수	백분율
부족하다	9	15.5%
보통이다	32	55.2%
적합하다	12	20.7%
훌륭하다	5	8.6%
합 계	58	100%



음악실 환경에 대한 응답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부족하다'는 응답으로 강원도 지역이 33%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전라권이 64%, '적합하다'는 응답은 제주도가 50%, '훌륭하다'라는 응답은 수도권이 15%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 응답 수 58명중 17명의 높은 응답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경상도 지역은 '보통이다'에서 60%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12> 음악실 환경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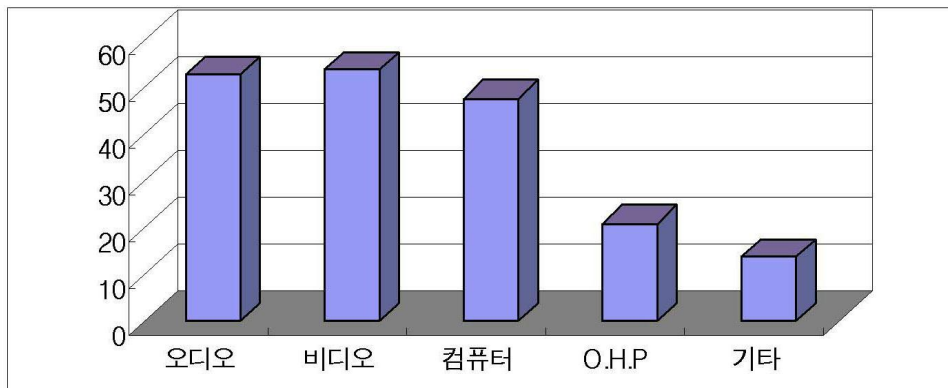
구 분	부족하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훌륭하다	합계
수도권	3 23.1%	7 53.8%	1 7.7%	2 15.4%	13 100.0%
충청권	2 22.2%	4 44.4%	3 33.3%	0 0.0%	9 100.0%
전라권	1 7.1%	9 64.3%	3 21.4%	1 7.1%	14 100.0%
경상권	2 11.8%	10 58.8%	3 17.6%	2 11.8%	17 100.0%
강원도	1 33.3%	1 33.3%	1 33.3%	0 0.0%	3 100.0%
제주도	0 0.0%	1 50.0%	1 50.0%	0 0.0%	2 100.0%
합 계	9 15.5%	32 55.2%	12 20.7%	5 8.6%	58 100.0%

11) 음악실 기자재 보유 현황

음악실 기자재 중 '오디오' 91% , '비디오' 93% , '컴퓨터' 83%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거의 모든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기자재만으로 감상수업을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모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기타의견으로 멀티시설, 프로젝션 TV, 실물 환등기, DVD,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가요반주기 등이 있었다.

<표 III-13> 음악실 보유 기자재

구 분	응답수	백분율
오디오	53	91.4%
비디오	54	93.1%
컴퓨터	48	82.8%
O.H.P	21	36.2%
기 타	14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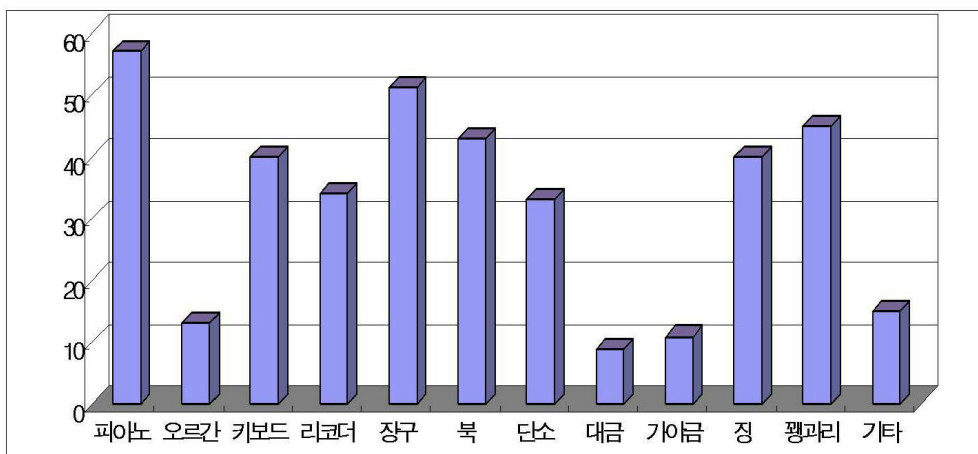


12) 음악실 보유악기 현황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로는 '피아노'가 98%로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장구' 88%, '북' 74%, '단소' 5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국악영역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학교 형편이 열악하여 피아노 및 다른 악기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외 기타 보유악기로 봉고, 심벌즈,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디지털 피아노 등이 있었다.

<표 III-14> 음악실 보유 악기

구분	응답수	백분율
피아노	57	98.3%
오르간	13	22.4%
키보드	40	69.0%
리코더	34	58.6%
장구	51	87.9%
북	43	74.1%
단소	33	56.9%
대금	9	15.5%
가야금	11	19.0%
징	40	69.0%
꽁꽁리	45	77.6%
기타	15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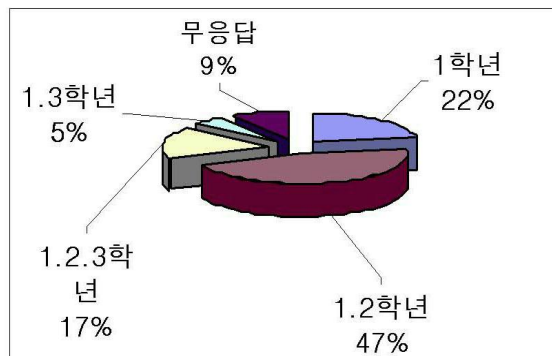


13) 교사의 담당 학년 현황

음악교사가 맡고 있는 학년을 묻는 질문에 '1,2학년'을 맡고 있는 교사가 47%로 가장 많으며, '1,2,3학년'은 17% , '1학년'은 22%, '1,3학년'은 5%를 나타냈다.

<표 III-15> 교사의 담당 학년

구분	1학년	1.2학년	1.2.3학년	1.3학년	무응답	합계
응답수	13	27	10	3	5	58
백분율	22.4%	46.6%	17.2%	5.2%	8.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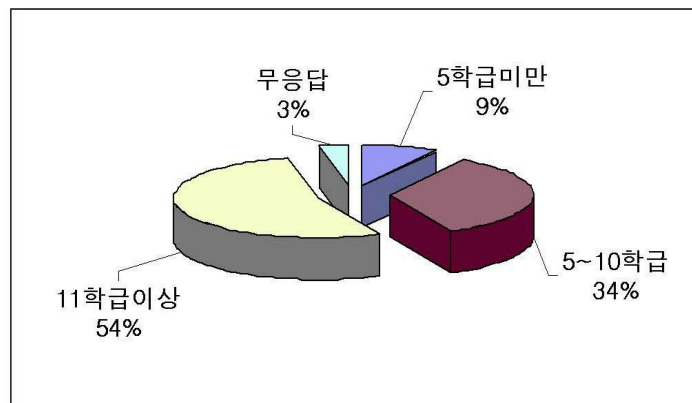


14) 교사의 담당 학급 현황

교사가 맡고 있는 학급 수는 '11학급 이상'이 53%와 '5~10학급'이 34%의 높은 비율로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교사가 학급 수를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16> 교사의 담당 학급 수

구분	5학급미만	5~10학급	11학급이상	무응답	합계
응답수	5	20	31	2	58
백분율	8.6%	34.5%	53.4%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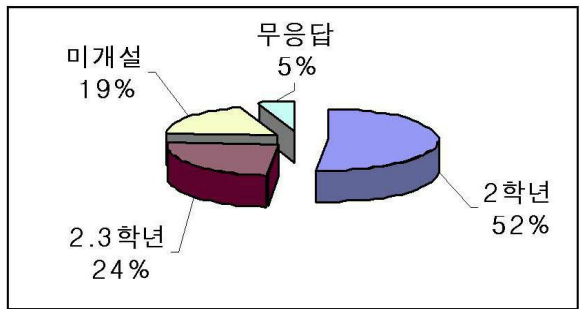


15) 2, 3학년의 음악과목 개설 여부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음악과목이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 '2학년에 개설된 학교'는 44개 학교이며, '3학년에 개설된 학교'는 14개 학교, '2,3학년 전부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11개 학교이다.

<표 III-17> 2,3학년의 음악과목 개설 여부

구분	응답수	백분율
2학년	30	51.7%
2.3학년	14	24.1%
미개설	11	19.0%
무응답	3	5.2%
합계	58	100.0%



음악과목의 개설여부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3학년에 개설되지 않은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권으로 응답 수 17개 학교 중에 14개의 학교가 3학년에 음악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학년에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경상권이 가장 많았으며 17개의 응답학교 중 5개 학교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표 III-18> 음악개설 여부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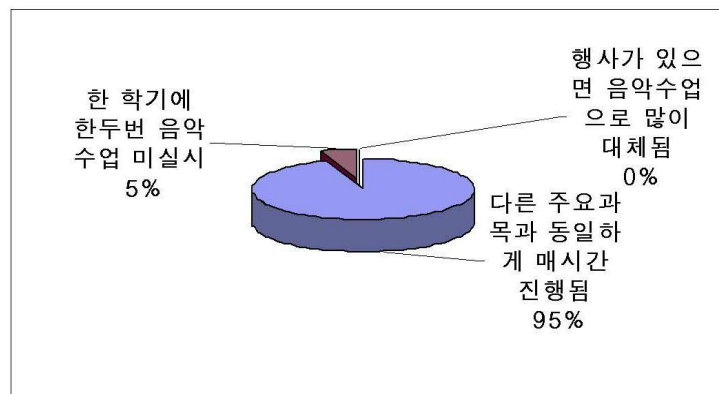
구 분	2학년	2.3학년	미개설	무응답	합계
수도권	4 30.8%	6 46.2%	2 15.4%	1 7.7%	13 100.0%
충청권	5 55.6%	1 11.1%	2 22.2%	1 11.1%	9 100.0%
전라권	8 57.1%	3 21.4%	2 14.3%	1 7.1%	14 100.0%
경상권	9 52.9%	3 17.6%	5 29.4%	0 0.0%	17 100.0%
강원도	2 66.7%	1 33.3%	0 0.0%	0 0.0%	3 100.0%
제주도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합 계	30 51.7%	14 24.1%	11 19.0%	3 5.2%	58 100.0%

16) 음악수업 진행현황

음악수업이 '다른 주요과목과 마찬가지로 빠지지 않고 진행된다'는 응답이 95%로 거의 모든 학교가 수업 진행이 잘되어진다고 보여지며, '행사시 음악수업으로 대체된다'는 학교는 0%의 아주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19> 음악수업 진행현황

구 분	응답수	백분율
다른 주요과목과 동일하게 매시간 진행됨	55	94.8%
한 학기에 한두번 음악수업 미실시	3	5.2%
행사가 있으면 음악수업으로 많이 대체됨	0	0.0%
합 계	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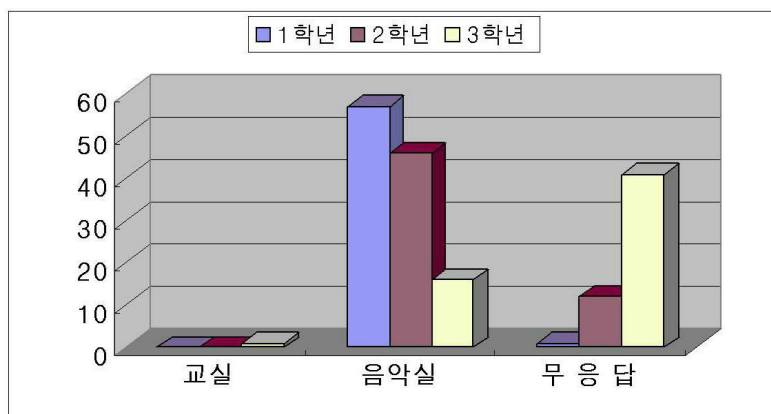


17) 음악수업 진행 장소

음악수업의 진행 장소를 묻는 질문에 1,2,3학년 대부분이 '음악실에서 진행된 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실에서 진행한다'는 응답이 3학년에 2%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교의 학급 수가 많아서 음악수업이 겹칠 경우라는 부연설 명이 있었다.

<표 III-20> 음악수업 진행 장소

구 분	교실	음악실	무 응 답	합계
1학년	0	57	1	58
백분율	0.0%	98.3%	1.7%	100.0%
2학년	0	46	12	58
백분율	0.0%	79.3%	20.7%	100.0%
3학년	1	16	41	58
백분율	1.7%	27.6%	7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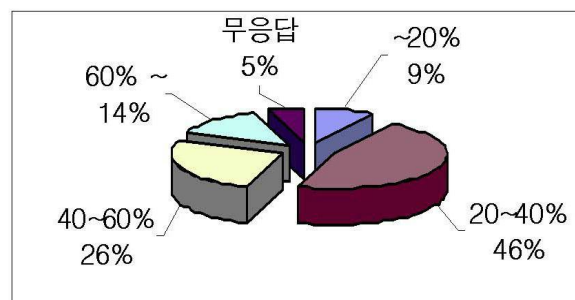


18) 가창영역의 비중

음악수업에서 가창영역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창영역을 '20~40%' 비중을 둔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40~60%' 비중을 둔다는 응답이 26%의 비율로 났다. 앞 설문조사 질문에서 음악교사의 전공을 묻는 질문에 성악 전공이 4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해 가창영역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영역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III-21> 가창영역의 비중

구분	응답수	백분율
~20%	5	8.6%
20~40%	27	46.6%
40~60%	15	25.9%
60% ~	8	13.8%
무응답	3	5.2%
합계	58	100.0%



가창영역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는지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60%이상' 두는 지역으로는 경상권이 24%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22> 가창영역의 비중 지역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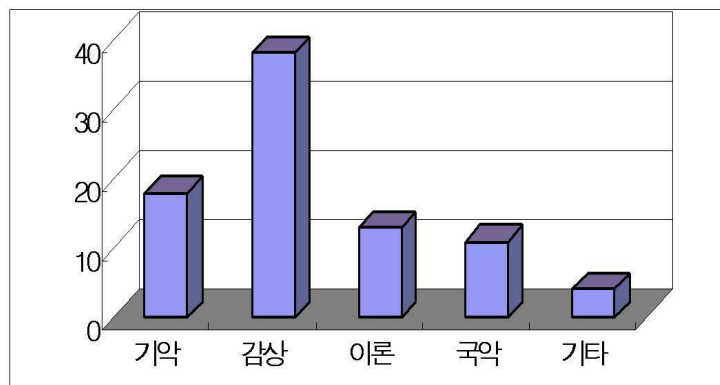
구 분	~20%	20~40%	40~60%	60% ~	무응답	합계
수도권	3 23.1%	5 38.5%	2 15.4%	1 7.7%	2 15.4%	13 100.0%
충청권	1 11.1%	5 55.6%	1 11.1%	1 11.1%	1 11.1%	9 100.0%
전라권	0 0.0%	6 42.9%	6 42.9%	2 14.3%	0 0.0%	14 100.0%
경상권	1 5.9%	6 35.3%	6 35.3%	4 23.5%	0 0.0%	17 100.0%
강원도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제주도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합 계	5 8.6%	27 46.6%	15 25.9%	8 13.8%	3 5.2%	58 100.0%

19) 가창영역 외 중시하는 영역

'가창영역 외 중시하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응답 수 38명이 '감상영역'에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많은 음악교사가 음악수업 진행 시에 가창영역을 제외한 나머지영역으로 감상영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타응답으로 발표, 창작, 연주 동영상에 비중을 둔다는 교사의 의견이 있었다.

<표 III-23> 가창영역 외 중시하는 영역

구분	응답수
기악	18
감상	38
이론	13
국악	11
기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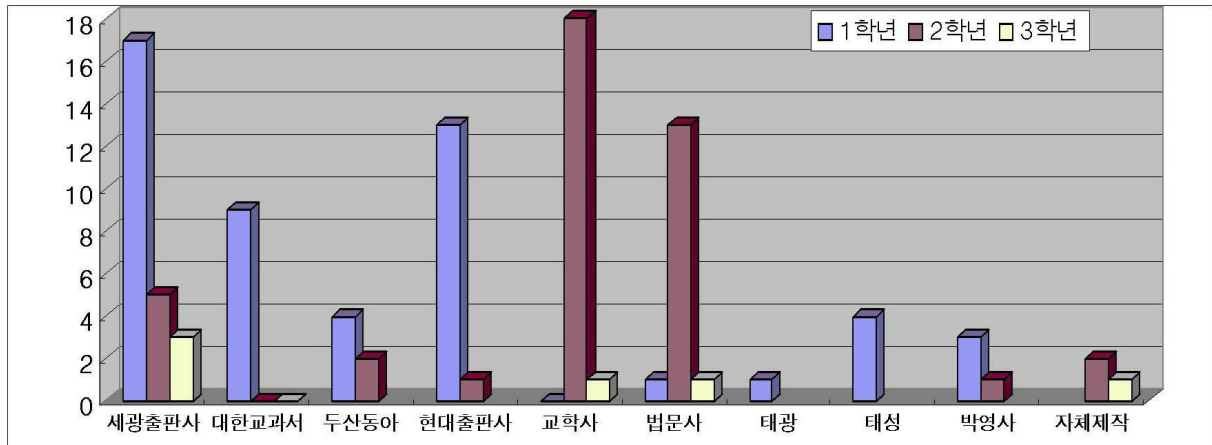


20) 교사가 사용하는 교재 현황

고등학교 음악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로 1학년에서는 '세광출판사' 교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에서는 '교학사', 3학년에서는 '세광출판사', '대한교과서', '법문사' 등이 있었다. 기타응답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론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음악교사가 자체제작 해서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24> 교사가 사용하는 교재

구분	세광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동아	현대출판사	교학사	법문사	태광	태성	박영사	자체제작
1학년	17	9	4	13	0	1	1	4	3	0
2학년	5	0	2	1	18	13	0	0	1	2
3학년	3	0	0	0	1	1	0	0	0	1
합계	25	9	6	14	19	15	1	4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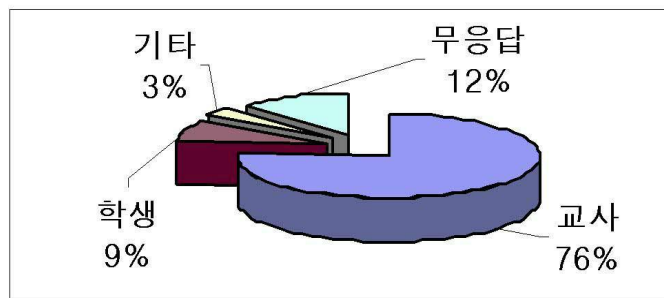


21) 교재 선택 시 중심이 된 사람

교재를 선택할 때 '교사가 선택한다'는 응답이 76%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학교 대부분이 교재를 교사의 재량에 의해 선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응답으로는 교재 선택 위원회가 선택한다고 의견이 있었다.

<표 III-25> 교재 선택 시 중심이 된 사람

구분	교사	학생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수	44	5	2	7	58
백분율	75.9%	8.6%	3.4%	1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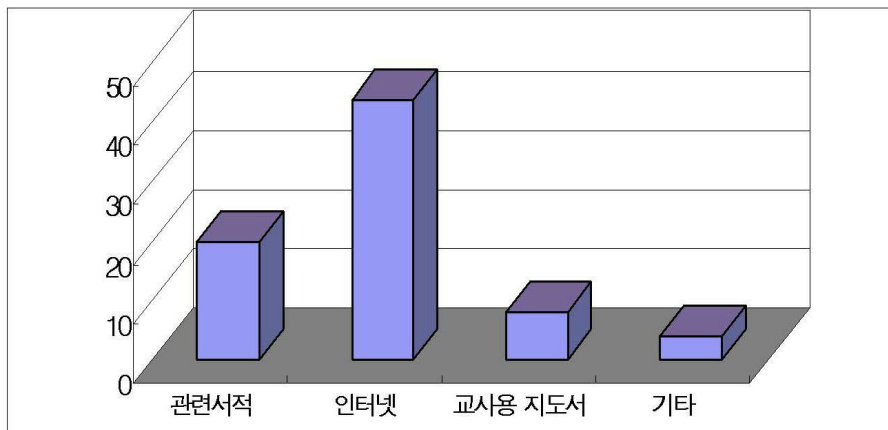


22) 교과서 외 수업준비 참고 자료

교과서 외 사용하는 참고 자료로 '인터넷을 참고한다'는 응답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련서적을 참고한다'는 응답수도 20명으로 인터넷과 관련서적을 참고자료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응답으로 그동안의 수업과정, 동영상, 대학교재, 감상자료를 사용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II-26> 교과서 외 참고자료

구 분	응답수
관련서적	20
인터넷	44
교사용 지도서	8
기 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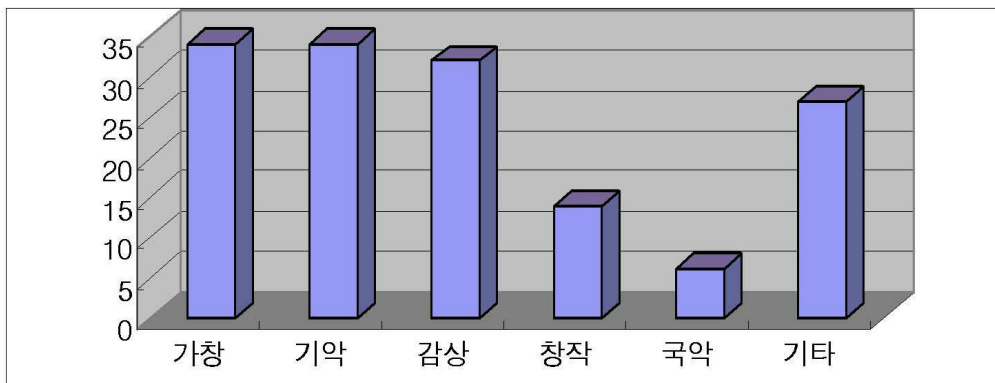


23) 수행평가 방법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창'과 '기악'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각각 34명이었다. '감상'도 32명이 응답하여 수행평가는 가창과 기악, 감상을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응답으로 개인발표, 조별로 활동하기, 학습태도, 음악관련 도서 독후감, 벨 합주 등으로 수행평가를 시행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27> 수행평가 방법

구분	가창	기악	감상	창작	국악	기타
응답수	34	34	32	14	6	27



24) 음악교사가 받은 음악연수

음악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응답에는 '국악연수', '컴퓨터 음악연수', '1급 정교사연수', '음악직무연수'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음악교육과정', '음악 교수법', '대중음악 활용 수업 세미나' 등이 있었다. 교사들이 '국악연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아 국악영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8> 교사가 받은 음악연수

구분	국악연수	컴퓨터 음악연수	1급정교사 연수	합창연수	지휘법	음악직무 연수
응답수	29	19	16	8	9	17

25) 음악실 환경

① 수업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 음악 시설 미흡
- 악기 보관실 없음
- 건물과 책걸상이 낡았음
- 협소 하고 어두워서 판서하기 나쁨

많은 교사들이 답하여 주셨지만, 그 중 몇 분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실은 있으나 그 밖의 기자재 미흡, 프로젝션 TV나 컴퓨터 등은 교실부터 지원하고 있음. (교사 가)

일반교실로서 감상 및 실기연주하기에 약간의 미흡한 점, 즉,
극장식 교실형태가 바람직하겠음. (교사 나)

컴퓨터, TV, 오디오, 비디오 등은 갖춰져 있으나 컴퓨터와
TV는 성능이 좋지 않고 사이즈도 작아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피아노도 수업을 하기에 큰 지장은
없으나 낡은 편이고, DVD나 빔 프로젝트, O.H.P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사 다)

② 그리 좋진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다.

- 국악수업에 필요한 기자재가 미비
- 공간이 넓은 편임
- 교실과 가까워서 큰 악기소리를 내거나 음악전공 학생들이
연습 할 수가 없음

많은 교사들이 답하여 주셨지만, 그 중 몇 분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오디오, 빔 프로젝트,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으나 악기 보관실
이나 자료실이 없으며, 교실 1실 넓이의 공간이므로 좁다.
(교사 가)

일반교실로서 감상 및 실기 연주하기에 약간의 미흡한 점.
(교사 나)

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하다.

(교사 다)

③ 음악수업에 적합하다.

- 기자재를 활용한 음악수업을 하기에 적당함
- 방음시설 잘 되어 있음
- 교실과 음악실이 떨어져 있어서 음악수업 하기에 지장 없음

많은 교사들이 답하여 주셨지만, 그 중 몇 분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교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 (교사 가)

다양한 악기와 컴퓨터, 오디오, DVD, 프로젝션 TV 등.

(교사 나)

방음, 냉난방 시설 잘 되어 있음. (교사 다)

④ 아주 훌륭한 편이다.

- 기자재 풍부
- 교실보다 음악실이 넓음
- 음악실과 연습실, 악기 보관실 있음

많은 교사들이 답하여 주셨지만, 그 중 몇 분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극장실 교실, 최신 오디오 시설. (교사 가)

기자재 풍부. (교사 나)

음악수업 및 소규모의 발표를 할 수 있는 용도로 2004학년도에
완공하여 새로 입주한 건물로써 수업하기에 어느 학교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교사 다)

조사결과 학교마다 음악 기자재와 악기 보유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음악
실 자체 환경에 있어 수업하기에 매우 미흡한 곳이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음악실환경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음악수업을 진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한다.

26) 음악수업 개설되지 않은 이유

- 수업 시 수가 안 맞음
-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음악수업이 거의 없음
- 학교에서 정함

많은 교사들이 답하여 주셨지만, 그 중 몇 분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입시로 인한 과목의 소외와 교사의 수급 문제. (교사 가)

인문계 고등학교이므로 대학 입시 교육 중심으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음. (교사 나)

음악은 어렵고, 체육은 따로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음악수업 선택하지 않음. (교사 다)

학생들이 음악과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음악수업을 통한 흥미를 줄 수 있도록 교사의 다양한 활동과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27)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유

- 고등학교 3학년이라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수는 많은데 음악실이 부족함

교사가 답하여 주신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학년 수업이 음악이론이고 음악실이 부족한 관계로. (교사 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교실에서 이론수업을 진행하기 보다 음악실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입시로 인하여 지친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 줄 수 있는 음악실이 있었으면 한다.

28) 교재 선택 이유

- 학생수준에 맞는 교재 선택
- 영역별 분리와 음악교과의 목적에 적합함
- 흥미와 인지도

많은 교사들이 답하여 주셨지만, 그 중 몇 분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영역별 정리가 잘 되어 있다. (교사 가)

쉽게 부를 수 있는 곡이 많다. (교사 나)

가요 등 기존의 교과서 보다 새로운 곡이 들어 있다. (교사 다)

교사들이 교재선택에 있어 학생들을 고려한 교재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을 배려한 음악수업일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입시에 따른 인문계 고등학교의 음악과목 수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음악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전국의 인문계 고등학교 1230개 홈페이지를 찾아 음악교사 이메일 주소가 나와있는 383개 학교만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8부가 회수되어 58부만으로 응답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음악수업이 기본 4단위였는데 제7차 교육 과정에 와서 2단위로 줄었다. 그리고 2,3학년에 '음악과 생활'이란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응답학교의 인문계 고등학교 58개 학교에서 현재 음악과목이 개설되어있는 학교는 2학년에 44개 학교, 3학년에 14개 학교이며, 3학년의 경우 71%가 개설되지 있지 않았다. 개설이 되었다 하더라도 학생이 선택하지 않으면 개설되지 않아 음악수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의문이다.

셋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음악수업은 '다른 주요과목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95%이며, '한 학기에 한두 번 음악수업을 미 실시 한다'는 응답은 5%로 음악수업이 입시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음악수업을 '음악실에서 진행한다'는 응답은 1학년이 98%, 2학년이 79%, 3학년이 28%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3학년을 제외하면 음악수업은 대부분 음악실

에서 진행된다고 보여진다.

다섯째,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로는 피아노가 98%로 가장 많았으며, 장구 88%, 북 74%, 팽과리 78%, 징 69%, 단소 57%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국악악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섯째, 음악실 환경에 대해 '보통이다'가 55%의 비율을 나타내면서 음악실 환경이 음악수업을 진행하기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 보이나 '부족하다'의 의견도 16%의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음악실 환경에 대해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곱째,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음악실을 '1개 보유하고 있다'는 학교가 82%, '2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학교가 10%로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실을 1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음악실이 1개일 경우 음악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덟째, 음악교사의 전공은 성악이 40%로 가장 많았고, 국악전공이 2%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보다 일반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음악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친 전공분야보다 여러 전공분야의 음악교사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홉째, 음악교사가 교사 재직 중 음악연수를 받은 경험은 '5회 이상'이 36%로 나타났고, '3~4회'도 34%로 나타났다. 음악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교사는 16%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가 음악연수를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열 번째, 음악교과서 외 수업준비 참고 자료로 '인터넷'을 참고한다는 응답 수는 44명, '관련서적'을 참고한다는 응답 수는 20명으로 음악교사가 음악수업 준비자료 시 인터넷과 관련서적을 많이 참고한다고 보여진다.

열한 번째, 수행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가창'과 '기악'을 시행한다는 응답

수는 각34명, '감상'을 시행한다는 응답 수는 32명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가창, 기악, 감상을 중심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보여진다.

결론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2학년에 44개 학교로 2학년에 음악과목이 대부분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3학년에는 14개 학교에 음악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3학년에 음악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의 재량에 따라 음악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택의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어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둘째, 음악실 환경에 대해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55%를 나타내어 음악실 환경이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음악실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몇 학교가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큰소리로 음악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방음시설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습실이 개설되었으면 한다.

셋째, 음악실은 최소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음악실에서 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큰 학교일수록 음악실이 2개 정도는 구비되어 있었으면 한다.

넷째, 음악교사의 전공 중 성악전공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래서 음악교육이나 국악을 전공한 다른 교사의 확보가 필요한 것 같다.

다섯째, 음악교사들이 음악연수를 많이 받았지만 국악 연수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래서 음악교수법이라든가 음악교육과정 등 다른 교육에 관한 연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여섯째, 음악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창, 기악, 감상, 국악영역 외 창작활동을 통한 발표수업과 학생들이 직접 연주한 동영상 등을 만들어 주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의 배려가 필요하다.

2. 제 언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하여 메일을 보내 설문조사를 하였다. 메일을 통한 조사연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일을 통하여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모든 학교의 교사를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그러나 메일을 통한 조사연구는 본인의 메일이 스팸메일로 보내질 수도 있고, 메일을 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은 것이 단점이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낸 383부에서 58부만이 회수되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조사연구는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많이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다른 조사연구 방법들을 연구하여 비용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조사 연구 등에 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인문계 고등학교의 악기 보유율은 높은 편이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장구를 비롯한 국악기나 리코더 등은 많은 개수를 보유하여 모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야 하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본인은 본 연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통해 음악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 연구에서는 음악수업에 대한 학생들이 보는 관점과 학생들이 음악수업에 대해 바라는 점을 고려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음악교육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음악수업인가를 고찰하여 음악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성태제 (2003). 교육연구방법의이해. 서울: 학지사.
- 김병성 (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 박도순 (2001).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김연희 · 문승태 · 장선철 (2003). 교육연구방법. 서울: 동문사.
- 허명희 (2002). SPSS 설문지 조사 입문. 서울: 데이터솔루션.
- 송진범 (2000). 음악교육학. 서울: 학문사.
- 이홍수 (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홍수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철구 · 이양 (2001). 심리학으로 본 음악 음악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한상철 · 권두승 · 방희정 · 설인자 · 김혜원 (2003). 청소년 지도론. 서울: 학지사.
- 김남선 · 이옥분 · 정일환 · 주동범 · 한상철 (2001). 청소년 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정부간행물>

-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9음악-.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8). 음악과 교육과정.1
- 교육부 고시 제1-16호 (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학술지>

- 오재현 (1998). 국민교육 시대의 고등학교 음악수업 방향연구. 예술과교육. 4.
- 김군식 (1980). 고등학교 음악과 학습지도의 방향. 교육제주. 43.

<학위논문>

- 공소현 (2001). 부산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혜자 (1987). 포괄적 음악과 학습지도를 위한 음악교육실태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부록

설문지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 수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문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음악교육과 5학기에 재학중인 박상미입니다.

석사학위논문으로 음악수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천대받고 있는 음악수업의 실태를 고발함으로써 음악과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생님의 평소 의견과 학교 음악교육현장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어 귀중한 논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논문을 위한 자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신 중에 본 설문지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4년 9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상미 올림

1. 귀교가 속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 제주()

14. 선생님께서는 현재 몇 학급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

15. 귀교에는 2, 3학년에 음악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①2학년에만 개설되어 있다.()

②2,3 학년 모두 개설되어 있다.()

③개설되어 있지 않다.()

→ 15-1,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음악수업을 선택한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

→ 15-4,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귀교에는 왜 음악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귀교의 음악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①다른 주요과목과 마찬가지로 빠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②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빠지는 정도이다.()

③행사가 있으면 음악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17. 음악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진행하십니까?

1학년①교실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②음악실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2학년①교실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②음악실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3학년①교실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②음악실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편이다.()

→17-1, '교실' 이라고 대답하셨을 경우,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8. 선생님께서는 가창영역에 얼마나 비중을 두십니까?

①0-20%() ②20-40%() ③40-60%() ④60%이상()

19. 가창영역 외에 중시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기악() ②감상() ③이론() ④국악() ⑤기타()

20. 선생님께서는 어느 출판사 교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21. 교재를 선택할 때 중심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

22. 그 교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 선생님께서는 교과서 외에 수업준비에 어떤 자료를 가장 많이 참고하십니까?

①관련서적() ②인터넷() ③교사용 지도서() ④기타()

24. 선생님께서는 이번 학기 수행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하십니까?

()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of Music Instruction for High School - Centering on Humanities High School -

Sang-Mi Park

Major in Music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improve music classes in non-professional high schools by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 of music classes which has been hindered because of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This researcher executed questionnaire by sending e-mail on 383 schools that e-mail addresses of music teachers are appearing after finding 1230 homepages of non-professional high schools all over the country. Then, 58 copies were collected. So, after analyzing answer only with 58 copies, this researcher suggested how to improve music classes.

Conclusion to be based on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the base unit of music classes from the 1st national curriculum to the 6th national curriculum was 4 units. Then, it decreased to 2 units at the 7th

curriculum. And, at the 2nd grade and the 3rd grade, subject, 'music and life' was opened as elective course.

Second, out of the 58 schools of non-professional high schools which answered questionnaire, schools that music subject is being opened now are 44 schools at the 2nd grade, and 14 schools at the 3rd grade. And, in case of the 3rd grade, 71% was not opened.

Though opening is made, if students don't choose, opening is not made. So, it is doubtful whether music lesson progresses really.

Third, answer that the music lesson at the non-professional high school is progressing equally with other main subjects is 95%, And, answer that music lesson is not executed over once or twice for 1 semester is 5%. Thus, it seems that music lesson is not influenced by the system of entrance examination greatly.

Fourth, as for the musical instruments that schools have, piano was most as 98%. And, janggu is 88%, drum is 74%, Kwengkwari is 78%, gong is 69%, and short bamboo flute is 57%. So, they show-

ed high rate. Thus, it is deemed that most high schools have many Korean music instruments.

Fifth, as for the major of music teachers, vocal was most as 49%,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is lowest as 2%. In addition, it is deemed that there are more teachers who graduated from general music college and majored in music education in graduate school than the teachers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education. It is deem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music teachers of various major fields than music teachers of

major field which leans to one side.

Sixth, as for the method to enforce performance evaluation, the number of answer that singing and instrumental music are enforced are 34 persons respectively, and the number of answer that appreciation is enforced is 32 persons. Thus, it is deemed that most schools execute performance evaluation centering around singing, instrumental music, and appreciation.

To suggest through above study is as follows:

As for survey study through internet, collection rate is low. So, though questionnaire through internet is made, scheme that collect may be made well should be studied. Other survey study schemes should be studied individually. And, though expense and time are taken, scheme one survey study to do by visiting directly etc. should be studied.

In the next study, study to be helpful to the development of music education is required, by studying which music education is right music lesson, through survey study to consider the viewpoint for music lesson that students see and what students hope for music lesson.